



국내 금형산업 생산 및 업계 동향

Trend of Mold and die Industry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2012년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던 국내 금형산업은 불과 반세기만에 금형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5위 금형생산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매년 통계청 '공업·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금형생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금형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에 금형업체는 1,341개사, 생산실적은 7조12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합자체 분석결과 10인 미만의 금형업체는 전국에 약 2,300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과 일반 제조업체의 내제화된 금형, 그리고 2012년 추정성장률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 2012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형산업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국가전반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형수출이 25.1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23.6억 달러를 기록해 국가경상수지 개선에 금형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뿌리산업이라고 불리는 금형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이들 제품이 세계 일류상품 반열에 올라서게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2011년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기준으로 금형 생산 통계집계결과 금형생산은 총 7조 126억원으로 품목별로는 플라스틱금형 3조144억원, 프레스금형 2조2,199억원, 다이캐스팅금형 1,176억원, 기타금형 9,144억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금형은 전년대비 15.9% 증가하며,

전체 생산의 4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최근 큰 증가세를 보인 프레스금형 역시 8.5%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금형산업은 1980년대 정부의 '금형공업육성지원방안' 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통계를 기반으로 1980년 315억원에

[표 1] 금형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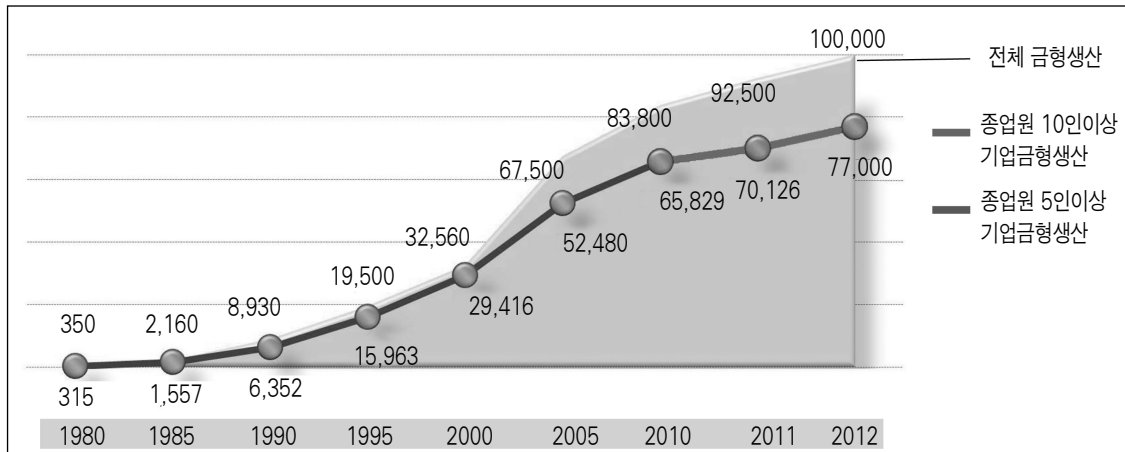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a)	2011(b)	증감(b/a)	구성비
플라스틱금형	23,529	25,998	30,144	15.9	43.0
프레스 금형	19,644	20,463	22,199	8.5	31.6
다이캐스팅 금형	1,014	1,252	1,176	6.1	1.7
기타 금형	7,536	9,628	9,144	5.0	13.0
금형 부품	5,187	8,488	7,463	12.1	10.7
계	56,910	65,829	70,126	6.5	100.0

※ 자료: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9~2011(10인 이상 기업 기준)

[그림 1] 우리나라 금형산업 생산 추이

(단위 : 억원)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는 2007년 이전은 5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 10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함
전체는 1인 이상의 금형업체에 대한 조합 추산 생산액임

불과하던 생산이 1990년 6,352억원으로 20배가 증가하였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판로개척으로 2000년에는 2조9,416억원의 실적을기록하였다.

꾸준한 수출증가와 기술고도화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도 생산이 증가하여 2010년 6조 5,829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7조 7,000억원의 금형생산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인 이상 국내 금형업체수는 1,341개사, 종업원은

34,9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자체분석결과 국내 10인 미만 금형업체를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총 3,600개사, 종업원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형조합 추산 결과 10인 미만 종업

[표 2] 금형업체 및 인력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업체	인력
종업원10인이상	1,431	34,926
전체	3,600	50,000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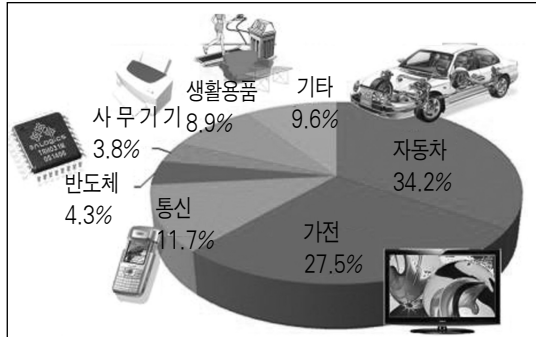
[표 3] 금형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1	2011(a)	2012(b)	증감(b/a)
수출	1,765,845	2,247,786	2,512,110	11.7
수입	134,977	139,597	151,711	8.7
무역수지	1,630,868	2,108,191	2,360,399	11.9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HS Code)

[그림 2] 시대별 주요산업 가전→통신→자동차로 변화



원 업체를 모두 포함한 금형업체의 금형생산은 1990년 8,930억원, 2000년 3조2,560억원, 2010년 8조3,800억원을 넘어 2012년 비로서 10조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조함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금형 수요 산업비중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34.2%, 가전 27.5%, 통신 11.7%, 반도체 4.3%, 사무기기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80, 1990년 백색 가전에 대한 금형수요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백색가전의 쇠퇴현상과 맞물려 자동차, 통신 분야의 수요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내수경기 침체속에 대기업의 해외진출, IT 스마트산업 도입 등의 현상으로 금형업체에 큰 위기가 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생산 10조원과 합

계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25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금형수출은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출 25억1,211만달러, 수입 1억5,171만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23억6,039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금형생산의 약 30%를 충족하고 있는 수출은 일본, 중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120여개 나라에 수출하며 수출효자산업으로 받돋움하게 하고 있다.

80년대 일본수출 비중 61.6%에서 18.9%로 전 세계 120개국 수출선 다변화

주요 금형 수출국가 및 수출비중도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형수출은 1980년 617만 달러 수준에. 이 시기 일본에 대한 금형수출은 61.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우디(12.3%), 쿠웨이트(1.9%) 등 중동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비중이 눈에 띈다.

1990년에는 그동안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1994년에는 수출 2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였고 대일금형수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1998년에 최초로 대일무역수지흑자 9,500만

[표 4] 연도별 주요 금형수출 국가 변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2년대	
일본	61.6%	일본	41.6%	일본	28.0%	일본	18.9%
사우디	12.3%	캐나다	7.6%	중국	12.0%	중국	16.4%
미국	10.4%	말레이시아	6.4%	말레이시아	6.1%	미국	8.5%
인도네시아	3.0%	인도네시아	6.1%	필리핀	5.4%	멕시코	6.9%
홍콩	2.8%	미국	5.2%	인도네시아	5.1%	인도	6.8%
기타	9.9%	기타	33.1%	기타	43.4%	기타	42.5%

달러를 달성한 이후 매년 무역수지 흑자폭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2000년대에는 일본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으나 수출선이 다변화 되어 수출국이 전 세계 120여개국에 달하였으며 2010년 수출은 17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최고 수준의 납기로 세계속에 한국 금형의 인지도를 높여 지난 2012년에는 수출 25억달러를 돌파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생산 세계5위, 수출세계 4위 규모의 금형 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 단기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은 후발경쟁국 보다 빨리 도입한 CAD/CAM 시스템보급과NC공장기계의 성능향상 등 기술혁신에 힘입어 품질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가 큰 요인이었다.

생산 10조원 시대,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세계 1위 금형 강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위기가 남아 있다.

현재 우리 금형업체들은 내수 시장은 물론 일본의 금형 수요 둔화 및 중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중심 금형수출구조를 개선하

는 한편, 고부가가치 금형기술 개발과 특화된 기술확보로 선진 금형기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산업군으로서의 발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해 신기술, 신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방산업군에 속하는 성형산업에서 전기·전자, 광학정밀, 생활용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및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과 품질 향상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후방 산업군에 속하는 금형소재, 공구·공작기계, 열처리 및 표면처리, 산업디자인 및 설계 등과도 보다 적극 기술융합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좋은 품질과 제품개발 기간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IT 기술 도입, 공정개선, 신설비 증설 등 끊임없는 투자노력도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최대 성장동력인 금형기술 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육성, 유입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및 인지도 개선을 병행하고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K]